

소설 읽기의 재미와 사는 재미

전성태의 《매향》

박남정 | 출판칼럼니스트



실천문학사/A5신/318면/7500원

더 이상 소설책이 읽히지 않는다. 통 심심하고 시시해서 재미가 없다. 한때는 내 가슴을 벌렁거리게 하던 한 작가의 기막힌 문체는 다시 읽어 보니 당초 내용이 없이 현란한 수사에 불과한 듯해 거부감이 일고, 기막힌 반전에 도발적 상상력 어찌구저찌구 화려한 평을 달고 얼굴을 내미는 소설들도, 몇 줄 읽다보면 더 이상 흥미가 일지 않았다.

넓고 쇠락한 농촌 사람들의 삶 마음 울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소설이 통 읽히지 않는다니까 한 친구가 말했다. “소설보다 사는 일이 더 재미있고 드라마틱해서 그런 거 아니니?” 지극히 평범한 30대 중반의 아줌마에 불과한 내 삶이 무에 그리 소설 같을까마는, 사람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혹은 사람살이가 너나없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들이 아마도 소설 읽기를 시들하게 만들었나 싶기는 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매향》 한번 읽어봐. 난 울었다.”

‘울었다’는 독후감보다 더 매력적인 게 있을까. 나는 당장 그날로 마치 잃어버린 ‘눈물’을 사듯 그의 책을 샀다. 그리고 울었다. 그의 책을 잡고 있는 내내, 그리고 책을 놓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울음이 그렇그렁해서일까. 여러 날 동안 코가 맵고 침 삼킬 때마다 힘이 들어갈 만큼 목줄기가 뻗뻗했다.

표제작 <매향>을 비롯해 모두 12편의 단편을 수록한 이 책은 작가 전성태의 첫 소설집이다. 1994년 등단한 그가 6년 만인 지난 1999년에 펴낸 책이다. 이 책 이후에 아직까지 그가 다른 작품집이나 장편을 펴냈다는 소식이 없으니 해설을 쓴 평론가 방민호의 말처럼 “사상과 사유라는 뼈대가 빈약한 가운데서도 쓴다는 일에서만은 부지런함과 꾸준함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들”과는 달리, 그는 어지간히 과작이다. 작가 말대로 ‘죽자사자 만지작’ 거리느라 그만큼 시간이 들었을 터다.

그의 소설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작가가 작품들마다에 쏟은 공력이 보기 드물 만큼 길고 오래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친 듯 질주하는 세상의 흐름에서 이제는 뒤쳐진 곳, 낡은 곳, 쇠락한 곳,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인 우리 농촌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반갑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농촌을 그리는 작가의 태도가 알팍한 감상에 흐르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보자며 선불리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농촌을 그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단편들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보태

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이야기들이 그냥 마음을 울리는 것이다.

세파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채 화전받이나 일구며 살자고 산골로 들어왔지만 희망처럼 뿌린 보리가 싹도 트기 전 유명을 달리고 마는 남자와 남겨진 여자, 태풍 피해 보상금을 받을 욕심에 제 집을 부수는 30대 농촌총각, 도무지 값을 길 없는 빚 부담에 야반도주를 꿈꾸는 가장, 바람나 집나간 아내 없이 시제 음식을 장만하는 남편, 폐병을 앓다 자살한 친구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노총각 영농 후계자, 땅을 지키려는 형과 땅 장사하는 동생….

아무리 미운 이도 돌려놓고 보면 이해 안될 것도 없는 법.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 하나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다. 굳이 나눠 ‘악’의 편에 속한 인물일지라도 세상이 그들에게 휘두른 더 큰 ‘악’에 비추면 그들 역시 피해자일 따름이다. 그러니 그의 소설을 읽는 재미는 인물간의 첨예한 갈등이라거나 사건의 긴박한 전개 따위에 있지 않다. 그저 ‘사람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걸지게 풀어나가는 작가의 남다른 입담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참으로 오랜만에 접하게 되는 ‘우리식’ 해학이 넘쳐나는 문체와 넉넉넉한 호박넝쿨처럼 휘감아드는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도 이 책의 재미를 더한다. 작가를 이야기하면서 김유정, 이문구에 이르는 농촌소설 작가의 계보를 들먹이는 것도 바로 이 이유.

삶에 대한 작가의 애정 녹아 있어

그러나 이 소설이 무엇보다 빛나는 것은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스산하고 불품없는 삶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맞닥뜨려도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삶을 다시 추스리며 말한다. “살어 있는 것만도 얼마도 고마운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울음이 통곡보다 더 큰 울음임을 알 때쯤이면 사람살이의 맛을 어지간히 알게 된 것일까.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만큼 힘겹지만 그렇다고 증빨나게 어렵거나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살이의 속내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이야기 숨쉴수록 술술 풀려나오는 이 소설을 읽으며 나는 한동안 읽었던 ‘소설 읽기’의 재미를 되찾았다. 이상한 것은 그러고 나니 쌀 씻느라 개수대 앞에 섰는데 문득 내 아랫배에도 힘이 실리는 것이다. “살어 있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디…”

세상살이에 지칠 때

하루하루가 힘겨워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읽으면 좋을 책이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책이나가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는 빙판을 걷듯 그렇게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건만, 그래도 옛 선비들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상지학’을 실천했죠. ‘삼상’은 마상(馬上), 침상(枕上), 축상(廡上)을 가리키는 말로 먼길 떠날 때나 잠잘 때,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짓눌린 가슴을 조금이나마 펴보고 싶다면 이런 책은 어떨까요? 《얼음에 갇히다》(제리 날슨, 공경희, 은행나무),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주대관 외, 김태연 외, 파랑새어린이), 《사망 일기》(루로우칭, 김혜영 외, 룡셀러) 말입니다. 역경을 극복했거나 투병한 사람들의 글들이죠. 역경극복기나 투병기의 지은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다며 등을 토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쾌하고 난 후 하고 싶어한 일들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죠. 세상에 남은, 아직 살고있는 사람의 견해함을 간직하고 이 책들을 대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용기에 안심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불행했던 이들이 그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려 삶의 동력으로 끌어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 약해져가는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차정신 기자

책과오과장 메멘토 박시백
siok84@hanmail.net



취/재/파/일

‘머리말’이 갖춰야 할 조건

출판현황을 분석할 때 확보한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져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베스트셀러의 움직임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책의 판매 부수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모아놓고도 찻찻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정확한 전산자료를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출판사가 출고 부수를 말해주거나 혹은 재고 부수를 역산해서 대강 알려주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는 오죽하겠는가? 책이 기획되는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자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한번은 출판사에 기획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는데, 그 답변은 ‘내부기획’과 ‘필자기획’이라는 지극히 간단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듯 상황이 절망적일 경우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저자가 쓴 ‘머리말’이다.

최근 영화 관련서 현황을 조사할 일이 있어 약 50권 정도 되는 책의 머리말을 복사해서 읽어봤다. 영화서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 어떤 방식을 거쳐 출간되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위의 세가지를 만족시키는 글은 별로 없었다. 대학원 세미나 결과물로 집착됐지만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책이 출간되기까지 출판사와 주고받았던 내용을 기록한 책은 거의 없었다. 집필동기는 짧은 길든 적고 있어서 도움이 됐지만 지나치게 감상적인 내용도 많았다. 물론 머리말의 기능이 독자를 본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관문이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세이를 제외한 학술서라면, 최소한 책을 쓴 동기, 주제에 대한 개관, 집필 과정, 독자층에 대한 언급, 그 연구분야에서 차지하는 의미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강성민 기자